

◇ 토 론

茶山 丁若鏞의 醫學思想

- 김대원의 “「醫零」에 나타난 茶山 丁若鏞의 ‘醫’에 대한 태도”를 읽고 -

鄭 遇 悅

圓光大 韓醫大

요즈음 茶山 丁若鏞(1763-1836)에 대한 研究는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茶山하면 우선 實學을 연상하게 된다. 그것은 茶山이 英·正祖時代 實學運動의 代表的 人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茶山에 대한 연구는 주로 實學的 면에서 많은 論文이 나왔지 醫學思想에 대한 論文은 거의 없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茶山時代의 實學運動 못지 않게 민족운동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만 茶山時代의 實學이 性理學 특히 朱子學에 대한 改新儒學運動이라면 오늘의 民族運動은 西歐思想에 대한 東洋思想의 回復運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此際에 김대원 씨의 論題는 時宜에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漢醫學을 專功하는 사람들이 다루어야 할 論題를 타 분야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전공을 하는 입장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반가운 마음 금할 길 없다.

著者は 茶山の 醫에 대한 態度라 하여 매우 겸양적 제목을 달았지만 실은 이것이 곧 茶山の 醫學思想이 될 것이다. 그러나 茶山の 醫學思想을 이야기하려면 이에 앞서 茶山の 實學思想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활태도나 의료행위는 곧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思想의 外的 表現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茶山の 醫에 대한 태도는 그의 思想인 實學思想과 떼 수 없는 관계다. 그런데 著者は 이러한 實學思想에 대한 一言의 言及이 없다.

茶山の 實學은 두가지 면에서 考察되어야 한다. 첫째는 經世의인 면이고, 둘째는 經學的인 면이다. 經世의인 면은 곧 治人으로 社會, 經濟, 醫學에 관한 것이고, 經學的인 면은 修己로 哲學, 宗教, 倫理가 될 것이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茶山을 醫學者로 보아야 하느냐? 經學者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茶山을 醫學者로 보기에선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많은 저서를 통해 볼 때 醫學的 면보다는 經學的 면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한 걸음 양보해 그를 醫學者로 본다 해도 그는 어디까지나 “儒醫”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의 實學思想이 經學과 經世, 즉 修己와 治人이라면 醫學的 면은 經世의 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醫學에 대한 著書는 索門的 醫學著書가 아니라 주로 그 시대 잘못 認識되고 있는 醫者의 意識이나 일반 국민들의 醫療觀에 대한 批判이다. 「醫零」도 바로 이러한 醫學에 대한 評論이다.

‘零’이란 落의 뜻이다. 물이 떨어진다는지(落水), 나락이삭이 떨어진다는지(落穗) 하는 의미다. 이렇게 볼 때 「醫零」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醫學漫筆」이나 「醫事評論」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나 여기서 茶山이 그 時代의 醫學理論을 評하는 데 좀더 구체적으로 評하지 못하고 ‘零’이란 表現을 빌어 우회적으로 한 것은 바로 그 時代 性理學者들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 아닌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茶山의 批評에 대한 是非非를 論하기에 앞서 이러한 茶山의 批評의 對象이 어디에 있는가가 더 重要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茶山의 醫學思想을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實學思想이 反性理學, 그 중에서도 反朱子學이라고 앞에서 말하였다. 그러면 反朱子學에 대한 새로운 思想은 어디에서 구하였는가? 여기서 우리는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상의 흐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달리 오직 朱子學만이 독존해 朱子學 이외의 학문은 ‘사문난적’이라 하여 목숨까지 빼앗던 시대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宋代가 지나면서 金·元代에 이르러서는 宋代 理學을 발전시켰으나 맹목적 계승이 아닌 비판적 實證醫學으로 체계화되어지는데 明代에서는 다시 理學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宋代의 理學이 아닌 心性學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나 清代에 와서는 考證學이 일어나는데, 考證學이란 考據學으로 漢代의 訓詁學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考證學에서도 漢代의 學을 그대로 無批判의으로 받아 들이려는 古文學의 傾向과 漢代의 學問 自體도 批判의으로 받아 들이려는 今文學의 立場이 있다. 이것이 바로 公羊學派다. 또 중국에서는 이미 後漢 이후에 불교가 들어 왔고, 明代에 선교사를 통하여 서양의학이 들어 왔다. 이렇게 볼 때 茶山의 朱子學에 대한 批判은 과연 어디에 연유된 것일까?

著者は 이 質問에 대하여 서양의학의 영향이라고 하면서 「天主實義」의 ‘四行’, 즉 氣·火·水·土와 연결하여 說明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茶山이 꼭 서양의학의 영향만 받았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本人의 생각으로는 茶山의 實學思想에는 金·元時代를 비롯하여 明代의 陽明學, 清代의 公羊學, 佛教醫學, 西洋醫學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思想體系를 形成하면서 그 立場(틀)은 어디까지나 原始儒學으로 돌아가려는 訓詁精神이 強하게 풍긴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다시 말해 茶山이 같은 實學者인 阮堂 金正喜(1786-1856)와는 달리 漢代의 儒學 마저 批評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면 茶山이 「醫零」에서 批判한 對象은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여기서도 두가지 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醫學理論的인 면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醫師들의 醫學運用과 國民들의 醫學에 대한 잘못된 認識이다.

그러나 여기서 의논될 것은 醫學理論인데 그가 指摘한 잘못된 理論은 주로 六氣說과 陰陽五行論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批判한 이러한 理論은 韓醫學의 經典이라고 하는 內經에 나오는 理論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內經의 全般的 理論이 아니라 部分的 指摘이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內經의 構成年代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內經이란 어느 한 사람이 한 시대에 著述한 著書가 아니다. 內經의 著述時期에 있어서는 學者들에 따라 많은 異見이 있지만(著者は 漢代作이라 하였지만) 戰國時代 初期로부터 後漢에 이르는 時期에 많은 醫家들의 共同盡力으로 素材가 모아져 하나의 書籍을 이루게 된 것이며, 一回의 撰述에 그친 것이 아니고, 오랜 時期에 걸쳐 끊임없이 補訂이 된 것이다.

이 內經은 그 후 7卷이 缺本이 되어 唐代 王冰이 補入을 하였는데 이 7卷이 모두 運氣에 대한 學說이다. 그런데 茶山이 指摘한 이 六氣說이나 五行生克論은 모두 이 運氣篇에 나오는 말들이다. 또한 「陰陽應象大論」과 같이 漢代의 思想에 대한 批判도 있다. 이렇게 볼 때 茶山은 漢代 以前의 原始儒學思想을 基準으로 그 이외의 形成된 學說에 대하여 주로 批判을 가한 것을 알 수 있다. 內經에서의 이러한 잘못이 그는 鄒衍 以後 讖諱家의 濁亂이라고 指摘하였

다.

앞에서 본인은 茶山의 思想은 서양의학의 영향도 있겠지만 陽明學이나 佛教 또는 考證學이 함께 어우러졌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그의 理論 批判에서 明·清代 醫學인 喻昌(1585-1658)이나 吳有性(1592-1672)과 같은 溫病學者들의 說을 많이 引用하였음을 보아 알 수 있다. 著者는 茶山의 四情論에 있어서 四情이 「天主實義」의 「四行」의 영향이라고 하였는데 元來 서양에서는 四元素와 같은 構造的 立場이지 東洋과 같은 運動(循環)의 立場인 「行」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왜 「行」을 붙였을까? 本人의 생각으로는 天主教가 중국에 들어 오는 과정에 있어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東洋人들의 意識에 가깝게 함으로써 「行」을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러면 四情의 四와 情은 무엇일까? 四는 周易의 四象, 佛教의 四大에서 볼 수 있다. 情은 性이다. 朱子學이 天理라면 茶山은 性情의 人間學이다. 이것은 이미 原始儒學의 孔孟의 思想이다. 그러므로 六氣를 天理中心의 規律로 機械論的 立場이라면 四情은 人體를 中心으로 氣候를 人體가 어떻게 받아들여 느끼느냐 하는 觀點에서의 立場이다.

이러한 醫學思想 경향은 明代 이후 이미 중국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다만 우리나라는 워낙 주자학만이 고수되어 그 외의 학풍이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것은 醫學만이 아니라 전체적 학문경향에서도 宋代 이후의 陽明學을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茶山의 醫學思想을 단순히 서양의학의 영향이라고만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茶山의 思想 淵源은 멀리 孔孟의 思想에 基底를 두면서 앞서 지적한 宋代 이후의 여러 사상들을 흡수하지 않았나 사료된다.

그 후 이러한 醫學思想은 東武 李濟馬(1838-1900)의 醫學思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茶山의 醫學思想을 總結해 보면 첫째는 天理中心에서 人間中心으로 轉換된 實證醫學이고, 둘째는 貴族醫學에서 民衆醫學으로 醫療對象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茶山의 醫學思想이 후에 크게 계승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茶山의 이러한 理論은 역시 그 틀이 儒學의 바탕을 벗어나지 못했고, 또한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과학혁명 후의 實驗醫學이 아니라 자연철학의 영향이기 때문에 크게 실제 임상이나 의료계에 변화를 미치지 못하였다.